

여자축구 U-20 월드컵 황인선 감독 “준비 많이…기대해달라”

FIFA U-20 여자월드컵 내일 캐나다와 1차전
역대 최고 성적은 2010년 독일대회서 3위 입상

한국 여자축구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코스타리카 U-20 여자월드컵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각급 대표팀 최초 여성 지도자인 황인선 감독은 10일(한국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된 사전 기자회견에서 “강팀을 상대로 한국 여자축구가 어떤 팀인지 보여주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C조에서 캐나다, 나이지리아, 프랑스와 경쟁하는 한국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캐나다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15일 오전 5시 나이지

리아, 18일 오전 11시 프랑스와 차례로 상대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국이 출전해 4개국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상위 2개국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프랑스는 최근 3차례 연속으로 이 대회 4강에 오른 강호다. 나이지리아 역시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4강에 3회 올랐다. 한국은 2010년 독일대회에서 거둔 3위가 역대 최고 성적이다. 지소연, 김혜리 등 현 A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활약했다. 황 감독은 “강팀과 경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팀에 비해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대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수뿐 아니라 코칭스태프 모두 임하고 있다”며 “첫 경기의 좋은 결과를 위해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탰다. U-20 여자월드컵은 2002년 시작해 2년마다 열렸지만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2018년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황 감독은 “한국은 여자축구팀이 줄어들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축구 20세 이하 대표팀 황인선 감독 (사진 = 대한축구협회 제공)

뉴시스

화순군체육회 복싱부, 대통령배복싱대회 메달 3개 획득



(왼쪽부터) 김지웅, 박수인, 이민성, 주태웅 선수, 박구 화순군체육회 복싱부 감독

남자 일반부 이민성(-60kg급) 금

화순군은 화순군체육회(회장 최규범) 복싱부가 제52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 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제52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울산에서 열렸다. 화순군체육회 소속 이민성 선수는 7일 남자 일반부 -60kg급에서 울산광역시체육회 김해진 선수를, 4강에서 남명산업개발 서민재 선수를 차례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8일 결승전에서는 인천광역시청 김준기 선수를 상대로 5:0 판정승을 거두며 -60kg급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자일반부 -67kg급에서 박수인 선수가 동메달을, -92kg급에서 주태웅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메달을 추가했다. 박구 화순군체육회 감독은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이 기세를 이어 앞으로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우리군 우수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펼쳐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화순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대회 개최

내일부터 19일까지...중·고등부 110개 팀 참여

화순군이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하니 읍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중·고등부)를 개최한다. 지난달 초등부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생 110개 팀이 참가

해 열띤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종목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개인전은 남녀단식과 남녀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누어 경기를 펼친다. 군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경기장 방역을 철저하

게 할 예정이다. 군은 지도자, 선수, 학부모가 자가 진단키트 음성 확인 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방역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본 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점검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한국 남자 배구, 세계 52위 태국에 충격 역전패



한국 남자 배구가 태국에 망신을 당했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은 9일 태국 나콘 빠툼 시에서 열린 2022 아시아배구연맹(AVC)컵 남자배구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태국에 세트스코어 2-3(25-17 25-23 19-25 23-25 12-15)로 역전패했다. 전날 흥풍을 누르고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

먼저 두 세트 따내고 무너져

한 한국은 태국에 예상 밖 팀미를 잡으면서 험난한 행보를 예고했다. A조 2위를 차지한 한국은 하루 휴식 후 C조 1위 일본을 상대한다. 12일에는 C조 2위 호주와 만난다. 두 경기 중 한 경기라도 패하면 1~4 위전이 아닌 5~8위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한국과 태국의 역대 전적은 13승3패가 됐다. 세계랭킹 32위 한국은 52위 태국을 만나 초반 두 세트를 모두 가져왔다. 고전했던 2세트를 25-23으로 정리하고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하지만 3세트 들어 경기가 묘하게 흘렀다. 실수가 겹치면서 손쉽게 점수를 잃은 한국은 결국 한 세트를 헌납했다. 4세트 또한 막판 범실로 무너졌다. 마지막 5세트에서도 경기력은 살아나지 않았다. 초반부터 끌려가던 한국은 나경복(우리카드)의 득점으로 10-10 균형을 맞췄으나 이후 연속 3실점 해 동력을 잃었다.



‘후반기 돌풍’ 두산·NC, 어디까지 올라설까

7위로 전반기 마친 두산, 5위 KIA와 4.5게임 차 좁히며 6위로 도약
6월초까지 최하위 머물던 NC, 후반기 승률 2위...7위까지 올라서

개막 직후부터 SSG 랜더스가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후반기 순위 싸움은 하위권에서 보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힘겨운 전반기를 보냈던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6월 승률 9위(0.364)에 머무는 등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았던 두산은 전반기를 7위(36승2무46패)로 마감했다. 5위 KIA 타이거즈(42승1무40패)에는 6게임 차로 밀렸다. 그러나 ‘가을 밤새와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 승률 4위(0.583)를 거두며 시즌 순위는 6위(43승2무51패)로 도약했다. 5위 KIA(49승1무48패)와 격차는 4.5게임 차로 좁혔다. 지난 5~7일 KIA와 맞대결에서 2승1패를 거두며 5위 추격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 NC는 후반기 들어 1위 SSG(10승4패) 다음으로 야구를 잘하는 팀이다. NC는 이 기간 8승1무4패를 작성하며 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6월 초까지만 해도 10위에 머물던 NC는 반등에 성공하며 어느새 7위(40승3무53패)까지 뛰어올랐다.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갖고 있다.

두산은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2019년에는 8월15일까지 선두 SK 와이번스(현 SSG)에 9경기 차까지 밀리고 있었지만 무서운 기세로 승수를 쟁기더니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도 7위로 전반기를 끝냈지만 후반기 반격 끝에 정규시즌 4위로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했다. NC는 불과 2년 전 KBO리그를 제패하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가을야구 실패와 올 시즌 초반 부진은 지난 시즌 중반 있었던 방역 지침 위반 슬러지 파문의 여파가 컸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올 시즌 출발도 함께 하지 못하면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이 모두 돌아오면서 전열을 재정비했고, 최근엔 선수들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다. 부진 끝에 주장 완장까지 반납했던 노진혁은 후반기 타율 0.451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박민우와 박건우도 같은 기간 타율 0.421, 0.364로 맹타를 휘두르는 중이다. 두산과 NC의 후반기 돌풍이 계속되면 5강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뉴시스



19세 이현주, 바이에른 뮌헨 완전 이적...2025년 6월까지

프로축구 K리그1(1부) 포항 스틸러스 유스 출신인 2003년생 이현주(19)가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완전 이적했다. 뮌헨은 10일(한국시간) “지난 1월 임대로 영입한 이현주와 완전 이적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라고 발표했다. 포항 유스 출신인 이현주는 올해 1월 뮌헨으로 1년 임대됐다. 당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 뮌헨 2군에 합류한 그는 4부리그에서 뛰며 합격점을 받았다. 홀거 자이츠 뮌헨 스포츠 디렉터는 “이현주는 드리블이 강하고 민첩하다. 득점력도 위협

적이다”며 “완전 이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임대 이적 이후 훈련과 실전을 소화하면서 좋은 인상과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현주는 구단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속 하게 돼 매우 기쁘다. 팀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현주는 172cm로 작지만 스피드가 뛰어나고, 폭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4세 이하, 17세 이하 국가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